| 현불 수상 |

아버지의 유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출가 전 귀의한 아들 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흰 부처님 의지해 사느냐?
나는 내 스스로를 믿고 산다"

세수가 90세인 올해 어느 날,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쉬셨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
생전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입니다"

아침울력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다. 큰형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것 같으니 급히 오라고 하였다. 어제 통화할 때는 일주일이나 한 달은 더 계실 수 있을 것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할 바를 잊었다.

올해 꼭 90세. 당신의 인생에 굴곡이야 없었겠냐만은 평생 거칠 것 없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출가 전 불교에 귀의한 아들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니? 나는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나 스스로를 믿고 산다. 너희가 절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불교를 믿으라고 권하지도 말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내가 출가하고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건 35년 전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이다.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당신은 그리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다른 환자들처럼 링거를 몇 개 꽂고 입을 조금 벌리고는 약한 호흡을 하고 계셨다. 의식을 찾지는 못하지만 가끔 침을 삼키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잠시 더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온기가 줄어든 손을 잡고 아들들이 온 것을 알려드렸다. 나직이 염불을 외우며 귓가에 말씀드렸다. "나무아미타불, 걱정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중환자실이라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을 먹고 와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자 전화벨이 울렸다. 다시 병실에 도착하니 당신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스러지고 있었다. 마지막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다.

"나무아미타불, 편히 가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형제 중 하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마시고 편히 가세요."

다들 담담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을 때 넷째가 갑자기 '엉엉' 하며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를 비롯해 형제와 가족들 누구도 애통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입관 때 큰형수님이 잠시 소리 내어 슬퍼했을 뿐이다. 35년 전 할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 형제들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내고 있었다. 성복제를 지내며 잠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각기 유전자의 장단점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딱히 불만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생전 아버지의 성실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우직한 책임감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림과 글씨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삶을 혼탁하게 하는 잡스러운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고지식함도 모두에게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형제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아버지를 닮은 것임을 새삼 느끼고 알 수 있었다.

70세까지 열심히 일만 하시더니, 은퇴한 뒤 당신의 삶은 나름 근사했다. 한동안 국내외로 거침없이 여행을 다니시더니, 복지관에서 중국어와 수영도 배우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댄스스포츠에 몰두하시며 후원금도 아낌없이 내곤 하셨단다. 몇 년 전 내게 오셔서는 봉사점수를 수천 시간 쌓았음을 자랑하기도 하셨다. 아들이 있는 절에 왔으니 부처님께 인사드린다고 법당에 참배도 드리고 스님들께도 예의를 잊지 않으셨다. 가끔 통화할 때면 당신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법명을 부르던 애틋한 당신의 목소리가 귓전에 선하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못 해본 말 지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당신의 유산은 당신의 당당하고 근사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습관이 바로 네 인생이다

우리의 하루는 습관에 의해서 시작되고 습관에 의해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할 것입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윌리엄 조이스는 "질서를 습관화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흥미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하나씩 축적해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행위들이 좋은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기만의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었어요.

〈위대한 유산〉을 쓴 찰스 디킨스는 오전 7시에 일어나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9시에 서재에 들어가면 오후 2시까지 꼼짝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두 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마의 산〉으로 유명한 토마스 만은 아침 8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는 9시에 서재에 들어가 1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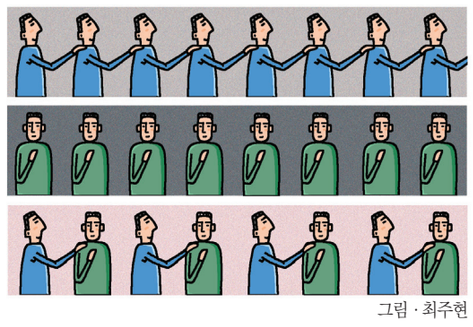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이끌지만, 나쁜 습관은 실패로 이끌고 가버립니다. 공부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정리정돈을 잘 하는 습관 등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습관,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 화를 잘 내는 습관은 성공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습관들이 하나, 둘 모여 자신을 이루고 있으며, 그 습관들이 자신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강한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려고 자신의 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는 뇌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습관은 연속된 마음가짐입니다. 반복된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이기에 버리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1일 정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뇌를 설득하여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종단 · 법인간 소통창구 설치돼야

조계종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현행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14년 법인법 제정 당시, 일부 법인들을 중심으로 종단 등록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종단이 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이를 통해 법인이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종단과 법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총무원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협의기구' 절차를 생략한 채, 9월 29일 법인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4일까지였지만, 기간 중 이를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법제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고, 본회의에서 종책질의까지 제기됐다.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향후 더 나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종단과 법인 간 신뢰를 공고히 구축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나눔의집, 더이상 방치 안 된다

나눔의집이 운영 논란에 휩싸인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일부 내부직원들이 제기한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나눔의집은 사회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불교계 역시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다. 경찰 ·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된 횡령 등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나눔의집을 향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나눔의집 정상화 책무를 지고 가동된 임시이사회에게는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갈등을 봉합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주어졌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는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급기야 양분화 되면서 파행에 이르고 있다.

나눔의집은 불교계 원력에 기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졌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운영상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는 여전하다. 정상화를 두고 제기되는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나눔의집이 진정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과 원칙, 역사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제 나눔의집 일부 내부직원과 운영진 간, 그리고 임시이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과연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지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면 된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부차적인 갈등양상 속에 표류해선 안 된다. 관할 지자체에 주어진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지한다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임시이사회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